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구축

익산시, 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 협의체 결성

익산시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의회,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익산상공회의소,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을 교육으로 보고, 출생에서 정주에

이르는 생애 과정을 하나로 꿰는 큰 줄기로 보고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복희 교육장은 "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익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프리카 나이 지리아 속담처럼 아이들은 마을 전체가 키우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교육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상생의 협력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2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한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동심공제(同心共濟)의 정신으로”

익산시, 2024년 시무식 개최... 앞서 군경묘지·여산충혼탑 참배

익산시가 2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한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직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풍물단의 새해의 희망을 담은 식전공연과, 한해의 청사진을 그리는 동영상을, 나은정 복지교육국장의 공무원 헌장 낭독 및 정현을 시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 앞서 간부공무원들과 팔봉

군경묘지와 여산 충혼탑에 들어 순국선열을 참배한 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동심공제(同心共濟)의 정신처럼, 시민과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 속 힘과 여유를 누리는 녹색의 정원도시 조성·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 구축·마한과 백제를 잇는 고도(古都)위상 정립·상생과 균형의 가치를 이는 함께하는 도시 조성을 2024년 시정 목표로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4개기업 선정

군산시는 2일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2023년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은 한 해 동안의 신규고용 증가율과 신규채용자 중 군산시민 채용률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4개사는 △(주)세아씨앤에스(대표 박혜식), △(주)미도(대표 목진섭), △(주)에스비즈(대표 정상훈), △(유

와이케이(대표 성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종무사에서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군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자보전금리의 1%를 추가 보전해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힘써 주신 대표님과 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22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군산시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과 공정한 선거관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총괄 담당으로 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추진상황을 종합관리할 계획이다.

선거지원상황실은 선거 담당부서 직원 등 4개반으로 구성돼 선거인명부 작성, 법정선거사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 갑질행동 강화,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교육·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익산시는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월에는 야구, 육상, 펜싱 등 선수팀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익산을 방문한다.

서울 대치중학교 야구부, 육상(투척) 국가대표 삼비군 및 꿈나무 선수, 펜싱 국가대표 삼비군 및 약 20개팀 이상의 리틀야구단이 종합운동장 및 빈대비체육관에서 동시에 훈련을 진행한다.

총인원 400여명인 이들은 2주 이상을 익산시에 체류하면서 기량을 갈고 닦을 예정이다.

특히 리틀야구 스포브리그에 프로야구 레전드인 양준혁 감독의 양산리틀야구단이 참여 예정이며, 투척 국가대표 삼비군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김태희 선수가 포함되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12월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 2개를 개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4654건 5억9000만원 달성

익산시, 4654건 중 10만원 기부 4079건 ·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 66건 달해

익산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5억 9천만원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3년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의 총액은 4654건에 5억 9066만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4억 1천 148만 148원 대비 148% 초과 달성했다. 이중 10만원 기부가 4079건(87.6%),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가 66건이었으며 이중 연 최대한도인 500만원 기부가 11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358건(35.3%), 경기 867건(18.2%), 서울 740건(16.1%), 경북 657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상호기부 등을 통해 타지역 대비 많은 기부를 유도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별 모금현황은 40대가 1,450건(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50대 1,419건(30.1%), 30대 1,041건(18.3%)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기부자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답례품으로는 익산 탐바루 쌀과 날씬이고구마, 농축산물꾸러미(한돈)세트 순서로 많은 선호를 얻었으며 하립산업의 데미식산물세트와,

나리찬의 갖김치가 그 뒤를 이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 시행 첫해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해 기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보내 주신 기부금은 익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뜻깊은 사업 추진으로 보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30개 업체 43종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24년부터 2년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

군산시가 2024년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전체를 감안해온 지역에 대해 지난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인 옥서면을 비롯한 주변지역 일대에 1단계 사업으

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65억원을 투입해 군산공항로, 타운로, 백토교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8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94억원을 투자해 4토지공사, 신덕~개정마을 도로확장공사,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옥서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5건에 대해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56억원을 확보해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의 본격적인 터널 굴진 계획이며,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옥서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2건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에 공여구역 주변 교통소외지역에 도로 확포장공사와 동·서부권을 잇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옥서~옥구간 709호선 확포장공사, 옥서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시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